

## ‘불편한’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안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대중서 읽기

Inconvenient Feminism, Bad Feminism, and Feminism within Us

---

저자 (Authors)	황정미
출처 (Source)	<a href="#">페미니즘 연구 16(2)</a> , 2016.10, 449-458(10 pages) <a href="#">Issues in Feminism 16(2)</a> , 2016.10, 449-458(1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여성연구소</a>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407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40745</a>
APA Style	황정미 (2016). ‘불편한’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안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16(2), 449-45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불편한’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 안의 페미니즘

— 페미니즘 대중서 읽기

황 정 미\*

수전 J. 더글러스, 『배드걸 굿걸』 (이은경 역, 글항아리, 2016).

룩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노지양 역, 사이행성, 2016).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예,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김명남 역, 창비, 2016).

리베카 솔닛 지음,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김명남 역, 창비, 2015).

### 불편한 페미니즘: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저는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믿어요... 하지만 저는 전투적으로 돌진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싶진 않아요. ...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2012년 7월, 마리스 메이어(야후 회장)의 인터뷰/ 룩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360쪽)

---

\* 고려대 강사, 사회학

남녀평등을 믿고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그러나 페미니스트는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히 논리적 모순이다. 성 평등을 빼고 어떻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를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헌법에 남녀평등의 가치를 선언하고 성폭력·성희롱을 법으로 처벌하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이 시대에 왜 페미니즘은 무언가 불편한 것이 되었을까. 필자는 몇 년 전 여성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여름 캠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몇몇 학생들은 때때로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학 전공자,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면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사회생활에서 불편하고 저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란단다.

페미니즘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주제는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여성혐오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다지 긴급해 보이지도 않는다. 악성 댓글,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적 언어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심지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범인의 표적이 되는 충격적 사건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하는 시공간적 맥락, 즉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조선시대나 마녀사냥이 자행되었던 중세와는 다른 21세기에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은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여성운동의 국제적 성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 신장이 전통시대보다 훨씬 진전되었지만,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반감들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페미니즘을 향해 표출되는 불편함을 21세기 여성혐오의 형질을 읽어내는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보려 한다.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른 것과 더불어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불황이 심하다는 서점가에도 이른바 페미니즘

대중서들이 더러 나왔다. 대학 교재나 학술서 번역본 위주였던 여성학 서가에 평이한 문체의 짧은 글을 읽은, 하지만 저자들이 내공이나 성찰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책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내 저자들의 글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목할 만한 번역서 네 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들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혐오와 더불어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을 진지하게 되돌아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 접근성에 가장 충실한 책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이다. 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소설가이며, 250만 다운로드로 화제가 된 TED 강연에 삶을 붙여 책으로 엮었다. 아디치에의 유명세는 대단해서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에 강연 일부가 피쳐링되었고 또 스웨덴의 고등학교 2학년 성평등 교재로 이 책이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강연에서 페미니즘의 불편함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 한다. 여성주의 소설을 쓰는 아디치에에게 주변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곤 했다. 그들이 보기에 페미니스트란 남편을 얻지 못해 불행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는 페미니즘이 서구 사상이므로 아프리카적이지 않다고, 또 다른 친구는 페미니스트란 남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그리하여 아디치에는 스스로를 매우 긴 이름, 즉 “남자를 미워하지 않는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로 부르기로 했다. 더 나중에는 “남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하이힐을 즐겨 신는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가 되었다고 말한다.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인 록산 게이 역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한 호주 작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페미니스트란 “개똥 같은 취급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녀에게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가이자 교수, 비평가로 페미니

즘과 젠더에 관해 많은 글을 써온 록산 게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 색이다. 그녀는 멋진 구두와 그에 맞춰 입을 옷으로 가득한 옷방에 판타지를 갖고 있고, 드레스를 좋아하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한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인 그녀는 차를 타고 갈 때 랩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를 좋아한다. 강한 비트와 라임이 근사한 그 랩의 가사는 그러나 여성 비하와 욕설로 가득하다. 나는 나대로, 내 취향대로 살고 싶은데,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현실의 나는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의 모습에 훨씬 못 미친다. 게이는 스스로를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 자신은 페미니스트로 실패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아예 아닌 것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두 저자의 이야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은 두 겹으로 겹쳐지며 ‘나쁜’ 페미니스트 역시 중의적이다. 우선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이다. 페미니스트는 세상에 대해 끝없이 화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스스로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있다. 이른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backlash), IS에 관심을 가진 10대 김모 군이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 이른바 ‘김치녀’를 향한 일베 회원들의 공격은 모두 이런 식의 ‘나쁜 페미니즘’ 담론을 변주하고 있다. 다른 한편 더 깊은 불편함의 내면, 즉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도 있다. 록산 게이가 말한 대로, 말끔하게 제모한 다리에 하이힐을 신으며, 아이 없이 혼자 늙어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걸까? 페미니스트의 이상에는 못 미치는 자신을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때, 사실 록산 게이는 백인 중산층 페미니즘과 근본주의 페미니즘을 안으로 부터 비판하고 있다.

## 꼰대 남성과 나쁜 여자

‘맨스플레인(mansplain: man + explain)’,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남자들의 태도를 신조어로 꼬집어낸 리베카 솔닛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솔닛은 우연히 파티에 갔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책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솔닛이 쓴 책이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에 도취한 듯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던 그 남자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책의 저자라는 말을 듣고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의 장광설을 멈추지 않았다. 솔닛과 친구들이 몇 번이나 설명을 한 후에야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이 경험을 토대로 솔닛이 쓴 글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졌고, 맨스플레인은 2010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뽑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꼰대 기질이라고 할 만한 남성들의 전형적 태도는 곧 여성을 통제하려는 남성 권력의 표현이라고 솔닛은 말한다.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남성다움을 확인하려는 사례들, 통제가 표현되는 형태와 강도는 매우 다양하다. 솔닛은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범의 예를 든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62건의 대량 총격살인사건 중 여자가 저지른 사건은 한 건뿐이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48쪽). 그리고 총에 맞아 죽은 여성들의 3분의 2 정도가 현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게 살해되었다고 지적한다. 물론, 남성이 모두 잠재적 살인범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남성들이 욕망과 함께 그 욕망이 퇴짜 맞을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분노를 품고 여성에게 접근한다. 분노와 욕망이 마구 뒤엉켜 버리면 때로는 사랑이 죽음으로 바뀌는 위험이 존재한다. 어찌 보면 총기난사범은 세상(과 여성)에 대한 분노를 총격으로 표출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죽음)에 이르는 점에서 공격자인 동시에 희생자가 된다. 그들은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현실의 억압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한 채 단지 여성 탓으로 돌리는 왜곡

된 정서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희생은 파괴적일 뿐 아니라 무의미하고,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다.

더 황당하고 악의적인 사례는 강간을 정당화하고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여성들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미국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이다. 여성이 진정으로 저항하면 강간을 당해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강간피해자의 낙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2013년 텍사스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는 낙태제한법을 막기 위해 1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 화면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고 한 때 조회 수가 18만을 넘었다고 한다. 록산 게이는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처럼 ‘막나가는’ 사례들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은, 이제 남녀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니 페미니즘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층 세련된 담론들이다. 수전 J. 더글러스의 『배드 걸 굿 걸』은 다른 책들에 비해 학술적 무게감이 짙은 문화비평서인데, 여성운동과 여권의 성장 이후 미국사회에는 좀 더 복합적 논리로 무장한 ‘진화된 성차별(enlightened sexism)’이 득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글러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중문화를 뜨겁게 달군 수많은 TV쇼와 영화 — 〈가십 걸〉, 〈그레이 아나토미〉, 〈섹스 앤드 더 시티〉, 〈오프라 윈프리 쇼〉, 〈금발이 너무해〉 등등 — 의 여성 주인공들, 즉 강하고 유능하며 기꺼이 권력을 휘두르는 나쁜 여자들(bad girls)의 면모를 종횡으로 분석한다. 사실 이 책이 미국의 대중문화를 속속들이 다루다 보니 낯설게 느껴지는 대목도 더러 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강력계 형사, 도둑, 조직 보스, 총잡이 등 강한 여성과 다양한 악녀 캐릭터가 즐비하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국가의 칠판에서 지워진 페미니즘

500쪽이 넘는 더글러스의 책을 한 두 줄로 요약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진화된 성차별의 의미를 간략히 두 가지로 조명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여성들의 일상과 몸, 섹슈얼리티를 지배하는 소비지상주의의 힘이 페미니즘을 능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화된 성차별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 성 평등을 실현하는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부활시켜도 무방하며, 심지어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많은 TV 쇼에는 똑똑하지만 섹시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돈과 권력까지 거머쥔 새로운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진화된 성차별은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강한 여성들을 내세워 겉으로는 새로운 페미니즘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성차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 안에서 여성의 힘과 자아성취란 곧 섹시한 외모와 세련된 명품, 44 사이즈의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도 내놓고 이야기하자, 당당하게 꾸미고 성형수술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은 여성을 옥죄던 편견을 깨고 달콤한 해방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지상주의에 포획되고 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중문화에 재현되는 매력적이고 강한 여성들의 모습은 현실의 여성과 동떨어져 있다. 능력자이자 권력자이며 출세를 지향하는 인기 여성 캐릭터들은 여성의 어느 한 측면을 극단적으로 강화한 것일 뿐,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초라한 현실을 가린다는 것이다. 셀레브리티 저널리즘에서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연애와 패션, 브란젤리나의 육아 이야기와 미셸 오바마의 새 드레스를 다루는 동안, 실제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는 관심 밖이다. 권력과 승진보다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여성, 몸매를 가꾸기보다는 매일 이중 삼중의 노동에 지친 여성들의 모습은 미디어나 대화 속에서 점차 주변화되고 무대 밖으로 밀려나간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역할로 복귀한 몇몇 사례가 ‘여성의 선택’으로 미디어에 부각되는 반면,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의 일상은 잊혀 진다. “결국 여성문제, 페미니즘 정치가 국가의 칠판에서 지워졌다.” (더글러스, 『배드 걸 굿 걸』, 511쪽).

## 우리 안의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 1970년대 이후, 그리고 UN여성대회에서 성 평등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한 1990년대 이후, 여권 신장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신자유주의의 확대,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 지구자본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실망과 분노에 편승한 극우 정당의 등장, 저성장 시대의 불안을 배경으로 약자와 소수자를 배타시키는 혐오정서의 만연 등등.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 독립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사람들은 알파걸과 골드미스의 등장을 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부당한 감정노동, 돌봄과 양육의 부담 등을 떠안고 있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표방했던 평등하고 당당한 삶의 새로운 이상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굴절되곤 한다. 페미니스트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저자들의 주장은 큰 흐름을 공유하지만 조금씩 그 결을 달리한다. 스스로를 60대 백인여성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수전 더글러스는 이른바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걸 파워’를 외치는 신세대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회화화가 만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의에 목이 마르며, 이제는 진화된 성차별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심장에 커다란 말뚝을 박아버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신념 이외에도 많

은 현실적 요인들, 즉 경제적 독립, 좋은 직업, 그것을 위한 학력과 자격증, 때로는 다양한 사회자본과 연줄도 필요하다.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바로잡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올바른 페미니스트일까? 그러나 록산 게이는 미국의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 소수자 여성들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정된 직업에 다가가지 못하며, 복잡한 가족관계에 뒤엉킨 상황에서 독립적 생활을 꾸려나갈 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아이티 이민자 출신의 유색인종 여성으로서 록산 게이는 ‘올바른 페미니즘’과 그렇지 못한 페미니즘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평범하고 다양한 여성들이 일상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실천들을 전문적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재단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 찾아가는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리베카 솔닛은 버지니아 울프를 인용해 매우 문학적인 암시를 던진다.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도시를 쏘다니는 해방을 추구하며, 미래는 불확실하고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상에는 본질적인 미스터리가 있다. 결국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녀에게 페미니즘은 오픈 엔딩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의 몰카, 대학생들의 단체대화방에 만연한 여성비하와 대상화,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일상의 곳곳에서 여성혐오 문제가 분출하는 중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책들은 주로 미국의 대중문화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우리의 절박한 현실 문제에 맞춤형 답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여성혐오 범죄에 분노하여 강남역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공감을 표현했던 여성들은, 바로 그 여성혐오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고 시위를 할 때도 검은 선글래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여성혐오는 한편으로

벌거벗은 폭력성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화된 성차별과 공모한다. 즉, 이제는 평등하고 강력해진 여성들이 과연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의 불안감을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과 연결하려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원시적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여성혐오가 기실은 진화된 성차별의 문화적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을 동원하고 약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여성 혐오 담론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결코 가볍지 않은 대중적 페미니즘 서적을 읽으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를 되물어 본다. 세련된 화장과 나를 표현하는 패션을 즐기는 당당한 페미니스트? 여성혐오와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공격을 반사하는 나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의 신념을 가르쳐준다면 여기저기 훈수를 두는 꼰대 페미니스트? 그래도 페미니스트가 아예 아닌 것보다는 부족하고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낫다는 록산 게이의 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안의 페미니즘은 오픈 엔딩이 아닐까?